{ 1주차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

<table>
<tr><td>북클럽 팀명</td><td colspan="8">장학생들판(場學生들판)</td></tr>
<tr><td>운영일시 / 장소</td><td colspan="8">일 시 : 2021년 10월 27일(수요일) / 장 소 : 카페(탐앤탐스 / 대면)</td></tr>
<tr><td rowspan="4">참석자 명단</td><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8</td><td>이름</td><td>나**</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7</td><td>이름</td><td>정**</td><td colspan="4"></td></tr>
<tr><td>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td><td colspan="8">

{감상평}

강:** 나는 이 책에 대해 약간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을 읽었다. 우선 책의 내용과 제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초반부에는 이 책의 제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기술되었다면 중, 후반부에 갈수록 이 책의 제목과는 약간 동떨어진 인재, 자기계발, 취업 등의 내용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한 너무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었는데, 자기발전의 내용 중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 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었다.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법 및 사례의 부재가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부분과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책에 나오는 멘티분들의 단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리나라는 왜 남 눈치를 많이 볼까? 라는 궁금한 점도 생겼다.

강:** 그동안 우리는 질문과 토론이 진정한 공부였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했다. 이 책의 파급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한국 G20 정상회담 때 오바마가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질문을 안 했던 가슴 아픈 사실은 특강 때 강사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이다. 유대인이 하브루타식으로 침을 튀기며 토론을 하는 영상은 작년 교양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와 쓰인 내용들은 정말로 좋다. 정작 이 책을 이번에서야 접하게 되어 아쉬움만 남는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는 형태의 인사말을 전해주시지만 유대인 같은 경우 “질문을 많이 하고 와”라는 형태의 인사말을 하신다는 점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 이 책을 읽은 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인용하여 이 책의 감상평을 적어보자면, 책 272p에 나오는 소제목 '교수는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평소 교수님의 말씀은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서 교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면

</td></tr>
</table>

	초, 중, 고등학생 때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하지만 대학은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은 것 같다. 대학은 수동적인 수업태도가 아닌 능동적인 태도로 수업을 듣고 교수님이 해주시는 가르침, 말씀 또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져야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정**: 나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들(다음 수업 시간이 촉박, 수업의 요점 방해 등)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어서 이 책이 좋았던 점을 말해보면 이 책의 원작은 다큐멘터리인데, 이 영상을 글로 쉽게 표현했고 대학의 본질을 생각하고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 같이 정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책이 왜 나오게 됐을까? 라는 근본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대학에 관련한 문제(교수, 학생, 시스템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 {실천하고 싶은 부분 및 실제 실천한 내용} 강**: 실천 내용: 하루에 한개 이상 질문하고 답하기 1일차 – '진보와 보수의 정확한 의미는?' :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로 불리며.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 대혁명 때의 국민 회의에서 유래했다. 좌파는 공평한 분배를 지향, 우파는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며, 진보는 보다 더 많은 국가의 개입이 들어가는 반면에 보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일차 – '세계대전 1차와 2차가 발생한 연도는? (세계대전 과정 확인하기)' : 1차 세계대전(1914.07.28.~1918.11.11.) & 2차 세계대전(1939.09.01~1945.08.15) 3일차 – '5.18민주화운동의 정확한 원인과 결과는?' :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의 집권에 따른 민주화 운동 발발,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행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 3가지 질문을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닌 상식 위주의 질문으로 한 이유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역사를 중심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충 알고 있는 것과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항상 생각만 해왔다. 대충 아는 것에서 끝나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도서를 통해 알게 된 하루에 한 개 질문하기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질문을 하는 것에 무조건 본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사소하더라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현재의 본인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를 질문해 모르는 것을 확실히 하자는 생각으로 나에게 질문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에 하나씩의 질문을 하는 것은 꽤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나를 성찰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실천한 것처럼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그에 따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질문하기는 삶을 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실천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강**: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사례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기'였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북클럽 다른 분들도 질문하기를 꺼려했는데, 나는 이 책을 읽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문 내용은 솔직히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질환 유전체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채점 결과와 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나는 손을 들어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채점은 누가 하시나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또한 바이오소재 때 resolution 방식 중 압출에 대해 설명하시는 교수님께 "혹시 압출이 여드름 압출 말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 책을 읽지 못했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들이었다. 두 번째로 실천한 행동은 하루 궁금한 질문 3가지를 나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기준님과 마찬가지로 10월 28일~10월 30일까지 하루에 질문 3가지를 합쳐 총 질문 9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8일 : 어떻게 하면 골키퍼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호학과랑 친해질 수 있을까? 10월 29일 : 어떻게 하면 정신력이 강해질 수 있을까? 말을 가려서 할려고 신경을 쓰면 대화가 흐르지 않고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까?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야지만 과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10월 30일: 어떻게 하면 토플 리스닝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에서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인터넷을 통해 찾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학교의 영어클리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한 질문들도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 못 다한 질문들을 해결하고 싶다. 나**: 나는 책 속의 있던 미션들 중 꾸준한 운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 2가지의 미션을 10/28(목) ~ 10/30(토)의 기간에서 실천을 해보았

	다. 사실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조금의 변화를 줬다. 변화를 준 부분은 최소치와 최대치의 운동량 구분이다. 나의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지금까지 나의 운동 패턴은 1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기였다. 이러한 패턴을 약 6개월간 유지를 해왔는데 방학기간에는 여유롭게 소화가 가능했지만 학기 중 특히, 시험 기간에는 위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특히나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력운동, 걷기, 뜀걸음 등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최소치는 1주일에 3회로 정했고 최대치는 1주일에 5회로 정했다. 단, 최소치의 기준은 학기 중, 시험기간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운동 횟수로 정했다. 현재까지는 잘 실천하고 있는 중이며 원래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을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Just do it”이다. 내가 만약 이전에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었으면 위와 같은 내 몸에 맞는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즉, 무슨 일이든지 일단 해봐야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그 나만의 기준이라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목표에 보다 빨리 다가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Just do it” 과 같은 방식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정****: 일기를 쓸 때는 줄곧 있었던 일을 적곤 했는데 요즘 일상이 매번 반복되어 그런지 딱히 쓸 말이 없었다. 책에 나왔던 감정 일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기 끝부분에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작성해 보았다. 단순히 행복과 슬픔 등등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사로 나열하기보다는 문장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근래 바쁘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참 정리가 안 되는 한 주였다. 평상시에 썼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쓰니까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이 정리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는데 일기를 통해 조금 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나 싶다. ## {서로의 장단점 말해주기} 이 책의 내용 중 인재와 관련한 부분에서 자신의 장점(강점)과 단점(약점)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서로에게 장단점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팀의 아이디어가 생겨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었다. **강****: 영인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필터링 능력이 강점이다. / 주영님은 대학 생활에 충실하다. / 기준님은 책임감이 많고 잘 주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 수연님은 호응을 잘한다. / 기준님은 지적이다. / 영인님은 논리적으

	로 말씀하신다. 나**: 수연님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몸의 제스처를 활용하여 호응 능력이 뛰어나다. / 영인님은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 주영님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신다. 정**: 주영님은 대학에서 찾는 인재상이다. 대학생활은 주영님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기준님은 학번에서 나오는 여유, 노련미가 있다. / 수연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전체적으로 자신을 잘 안다. 단점의 경우 아직까지는 서로 파악할 시간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모임 활동을 가지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학기말, 북클럽 활동이 끝나기 전에 각자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참가자대표 : 나**

{ 2주차 『최후의 몰입 final-flow』 }

<table>
<tr><td>북클럽 팀명</td><td colspan="8">장학생들판(場學生들판)</td></tr>
<tr><td>운영일시 / 장소</td><td colspan="8">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요일) / 장 소 : 카페(이디야 / 대면)</td></tr>
<tr><td rowspan="4">참석자 명단</td><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8</td><td>이름</td><td>나**</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7</td><td>이름</td><td>정**</td><td colspan="4"></td></tr>
<tr><td>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td><td colspan="8">

{감상평}

강:** 이 책을 읽으니 몰입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 또한, 라이벌과 경쟁을 하여 몰입에 도움이 될만한 상황을 만들자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사실 학창 시절에 내 친구이자, 공부에 관한 라이벌이 있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서로 실력이 비슷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그 친구를 이기려다가 결국엔 그 친구를 이기지 못했다. 또한, 그 친구랑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부러 멀어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책을 그 상황에서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만약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라이벌인 그 친구를 이용해서 나 자신이 더욱 더 성장하던가, 아니면 그 친구를 피해서 나만의 길을 가던가 등 여러 방법들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사람의 극한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이 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책을 시작하는 배경 자체가 승자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현실의 내가 그들을 이해하기에는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며 읽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배울 것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강:** 책의 결론은 그렇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처음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 매진하다가 어느 순간 흥미를 포기한다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다시 흥미를 가지게 시작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에 대해 성취감과 보상을 얻었을 때라고 설명한다. 이 책을 읽고 필자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필자는 평소에 동아리 활동과 공부에 매진한다. 사실 요즘은 동아리 활동에 더 힘이 벅찬데, 여기에 흥미를 느끼려면 무언가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 보상은 바로 동아리 사람들과 친해져서 술 먹기, 배구동아리 대회 참가하기, 만약 엑스트릭 동아리라면 더욱더 짜릿한 경험을 하기 등이었다. 또한 공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험기간이 아닌 평소 기간에 틈틈이 하자. 힘들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 2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 느낌을 이어받아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공부해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td></tr>
</table>

	나: 이 책에는 좋았던 점이 여러 가지 있었다. “나에게 낯선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라.”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또한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 중에서 나의 장점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나의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창과 방패”에 비유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나의 라이벌은 나뿐이다”라는 구절도 인상 깊었다. ‘주도적 몰입’처럼 목적, 목표에 대해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았다. 좋았던 점처럼 비판할 점도 많았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 구절은 올림픽 특정 선수에게만 맞춘 것이지, 일반 사람들(대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사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착한 척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져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간에서 착한 척을 하는 것이 결국엔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정**: 이 책의 내용은 조금 흔한 얘기이다.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하고 싶다. (지키지 않은 일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팩트 폭력을 가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자기 계발에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전반부는 채찍, 후반부는 당근으로 비유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선수들의 얘기를 ‘몰입’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풀어서 인터뷰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메달을 따기까지의 힘든 과정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운동선수 얘기를 듣다 보니,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 3연패를 달성했던 안산 선수가 최근 국대 선발전에서 14위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 중에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문장이 생각났다. 1등을 겪어보고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은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소 우리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운동선수 얘기들이 자주 나오지만, 그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던 사례들이다. 이 책의 좋았던 점을 얘기해 보자면, 그 여느 때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여느 자기 계발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들을 나열해 놓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자신이 평소에 몰입했던 대상 혹은 몰입이 필요한 부분}** **강**: 몰입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2학년 1학기의 시험기간을 예로 들 수 있다. 책에서, 몰입을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치우고 한 대상에 몰입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것을 시험기간에 제일 잘 실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실천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첫째로는 공부하지 못할 환경을 제거했다. 우선 집에서 공부하기에는 침대, 핸드폰 등 공부를 방해할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아예 도서관에 가 그런 것들을 차단해버렸다. 두 번째 사례는 자율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우선은 일어나는 시간을 8시 이전으로 한정시키고, 절대 그 시간을 넘겨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에 가는 것도 무조건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가는 것으로 내 자율성을 제거시켰다.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는 신문물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 ‘챌린저스’라는 앱을 사용해 돈을 걸고 미션 형식으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인증하고 돈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나에게 너무 딱 맞는 방식이라 그만큼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강제성이 있는 미션 형**

	태의 실천방법은 나의 몰입을 더 확실하게 했다. 몰입했던 경험 중 가장 최근의 경험인데, 이 경험은 언제든 내가 몰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줬다. 강**: 예를 들어 나는 오후의 스케줄을 맞춘 후 clc의 동방으로 와 공부를 한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있고, 그날 배운 과목을 복습할 때도 있는데, 항상 8시에 도착해 10시까지 공부를 하곤 한다. 남은 시간은 2시간 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양보다 몰입을 중요시 여기고,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외운다. '강박을 버리고 몰입을 하자' 몰입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방해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놓는다. 두 번째, 시계를 가려, 몇 분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하려다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저녁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할 양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뇌가 장에 신경을 많이 써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침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아침을 먹으면 정말 졸리다. 아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편의점에 파는 에너지 바로 아침을 대체하는데, 이러한 행동의 변화 이후로 아침 수업에 제대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축구 경기를 할 때이다. 나는 주 포지션이 골키퍼이다. 골키퍼가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결국엔 방심을 하여 공을 놓치곤 만다. 그리고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는 실점으로 이어진다. 사실 골키퍼가 몰입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나는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한 눈을 절대로 팔지 않는다. 나**: 1. 군대에서는 자격증을 따면 휴가를 준다. 군인에게는 휴가는 황금이기 때문에, 휴가를 받기 위해 자격증을 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1급을 따기 위해 야간 연등(10시에 불이꺼짐) 시간에 도서관이나 싸지방에서 12시까지 공부를 하였고, 결국 1급 자격증을 따냈다. 돌이켜보면 이 때 정말 열심히 몰입하여 공부했던 것 같다. 2. 복학하고 나서 술을 먹는 등 매일 놀았다.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 운동도 하고, 뛴 걸음, 러닝, 걷기, 근력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였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중인데, 덕분에 일찍 일어나 일찍 자는 중이다.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는 하기 싫었지만 몰입을 통해 하기 싫은 운동,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극복해낸 것 같다. 이것을 조금 더 즐기는 부분으로 발전시키면 몰입이 더 잘 되고 더 긍정적으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 지금 북클럽을 통해 몰입하고 있다. 원래 책을 읽을 때는 짧고 길게 절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무한의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북클럽에서 읽기로 목표한 책들은 다양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한번 앉으면 목표했던 양까지는 책을 꼭 읽는다. 내가 북클럽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점이 다양성과 책을 완독하고자 했던 끈기였는데 그중 절반은 결실을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 ## {강점을 강화, 약점을 보완}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과 약점을 보완시키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있다. 물론 정답은 없다. 다만, 시

	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북클럽 팀원들의 의견을 구해봤는데, 모두가 만장일치로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을 택하였다. 강**: 우리 어머니의 사례를 들고 싶다. 어머니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적이 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던 어머니는 수학에 약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할 것인지 수학을 공부해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하셨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강점인 다른 과목들을 키우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결국 성공을 했다. 공부해도 점수의 상향이 확실하지 않은 방법보다 오히려 높진 않지만 기준 점수를 넘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이 맞았던 것이다. 그때 강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의 사례를 들면, 영어를 못하는 대신에 수학은 잘했다. 영어를 적당히 하고 수학을 최대 2등급으로 끌어올렸더니 결국에는 법학과에 합격을 하였다. 또한 나는 어중간하다는 말을 듣기 싫다. 강점의 강화와 약점의 보완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은 무조건 강점의 강화를 선택할 것이다. 강**: 만약 내가 야구선수를 스카우트하는 헤드헌터라면 약점이 없고, 강점도 없는 평범한 선수보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지만, 엄청난 강점을 가진 선수를 뽑을 것이다. 나**: 임원직으로 가려면 자신만의 강점을 확실히 길러야 한다. 특히 경영인은 회사 대표, ceo, 행정관리직 등 세분화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딜 가나 내 약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약점을 커버하는 노력 대신에 강점을 키워 나에게 알맞은 분야를 선택하자. 정**: 내가 만약 나이가 어렸다면 약점을 보완하는 쪽과 강점을 강화시키는 쪽 모두를 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 약점을 보완하자는 생각을 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강점을 키우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점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2021년 11월 3일

참가자대표 : 나**

{ 3주차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

<table>
<tr><td>북클럽 팀명</td><td colspan="8">장학생들판(場學生들판)</td></tr>
<tr><td>운영일시 / 장소</td><td colspan="8">일 시 : 2021년 11월 10일(수요일) / 장 소 : 카페(이디야 / 대면)</td></tr>
<tr><td rowspan="4">참석자 명단</td><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8</td><td>이름</td><td>나**</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7</td><td>이름</td><td>정**</td><td colspan="4"></td></tr>
<tr><td>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td><td colspan="8">

{감상평}

강:**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강 알기만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4차 산업혁명을 정확히 알기 위해 선정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주를 이룰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다. 전문용어는 물론 그 용어를 설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내용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꽤 좋은 책이었다. 2016년에 이 책이 발간되었는데, 2016에 이야기한 제4차 산업혁명과 현재인 2021년의 제4차 산업혁명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다. 2016년에 발간된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렌트사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재와 비교해보면 그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렌트사업이 잘 안되었다는 점에서 2016년과 2021년의 차이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는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재미는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을 알 수 있었던 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어느 분야에서 발전할지, 혹은 어느 곳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꽤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인 2021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곳에 4차 산업혁명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를 생각했다.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다.

강:** 필자는 '인터넷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는다. 그 수업 초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는 게 이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생명공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첨단소재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이 분야는 잠재적으로 내포된 사회문제를 가짐과 동시에, 현재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 중 하나이다. 필자는 사회문제에 관해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사회문제에는 윤리적 문제, 실직 문제 등이 있다. 윤리적 문제로는 무기화를 예로 들 수 있고, 또한 딥 마인드 사례에서 보듯이 인공지

</td></tr>
</table>

	능 기업에서 윤리를 담당하는 팀이나 부서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만약 인간의 가치관과 인공지능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범죄자들이 해킹을 할 수도 있다. 실직 문제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고용되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해진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에 대규모 투자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학에서도 올해 인공지능 학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첨단소재, 이 분야는 곧 필자의 진로와 관계가 되는 분야이다. 그래서 필자는 첨단소재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읽었다. 신소재와 나노기술은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단점을 보면 나노기술 중 나노 봇의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 범죄와 연결이 될 수 있다. 또한 나노 오염물질은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신소재 또한 폭발물이나 화학무기를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필자는 고분자소재를 듣는데, 고분자 쪽이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폭발물의 합성에 사용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다. 반면 장점은 무엇일까? 소재 과학은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를 변화시키고, 산업과 경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산업과 경제를 바꾸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 산업, 스타트 업의 대규모 관계망이 요구된다. 또한 첨단소재와 나노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 분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거미줄처럼 묶여있다. 나**: '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을 읽으며 느낀 점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이미 우리는 책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 책 52p에 나와 있는 티핑 포인트와 책의 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의 발행연도가 2016년도인데 불과 5년 만에 먼 미래의 일 같았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음으로는 세상의 변화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업혁명, 제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겪어왔다. 여기서 재미있던 점은 실제 위와 같은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들이 내가 생각한 시기보다 한발자국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3차 산업혁명은 1980~90년도 사이에 일어난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빠른 196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평소 내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나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고령화와 노동력과 관련한 문제에 관련해서도 많은 점을 알게 되었는데, 최근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동력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자 각 선진국은 그 노동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기계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일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문제이다. 선진국들의 기업들은 자국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우고 값싼 노동력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왔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장에 한국이나 중국 등이 위와 같은 사례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진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해 그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기계, AI 등의 가파른 발전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지자 리쇼어링현상(선진국들의 자국 생산)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는 멀지않은 미래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 정**: 어렵다. 예를 들어 증강 인간, 퀀텀 컴퓨팅, 센터니얼 슬럼프 등등 비전공자나 IT산업에 문외한 이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주로 나온다. 각주를 달아두기는 했지만, 뒤에 맞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 찾아서 읽어야 하는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가 더뎠다. 하지만, 다양한 지식을 쌓고 싶어 했던 취지에 맞게 얇고 짧았던 4차산업 지식에 튼튼한 기틀을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계경제포럼의 공식 도서답게 5년 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많은 내용이 나와 흥미롭게 읽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구구절절 쓰인 4차산업의 기술들과 장점이 아니라, 저자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기억에 남는다. 4차산업혁명만을 그대로 앞에 두고 보았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주목받는다. 지금도 당장 떠오르는 것들은 온갖 긍정적인 것들 뿐이다. 스마트 도시를 예로 들겠다. 스마트 도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모든 것들이 IT화 되어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끔 해주지만, 해킹이 발생한다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부가적인 단점으로는, 3차산업조차도 발생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디지털 사각지대 등등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4차산업 옆에 늘 존재한다. 이처럼 세계는 늘 진보하니까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쩜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이 늘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사 및 느낀 점 } 강**: 책에서 언급한 체내형 기기는 체내에 삽입되어 의사소통을 돕고 위치와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6년에 책이 발간된 것을 생각하면, 2016년에도 체내형 기기가 상용화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새삼 오래전부터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책에서는 의료용 기기의 상용화와 전자문신, 말하자면 내재된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며 이들이 더욱 상용화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한다. 2021년인 현재, 2016년보다 체내형 기기가 더욱 발전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했다. 알아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실생활과 연관되는 바이오칩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체내 삽입형 기기를 보자면, 계속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전의 체내 삽입형 기기는 많은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해야 했다. 삽입 후의 염증은 물론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로 오면서, 그 단점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완하고 있다. 몇 년 뒤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

	의 체내형 삽입 기기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례로,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그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스웨덴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4,000명 이상이 바이오핵스의 칩을 이식받았다. 바이오칩은 쇼핑부터 문 개폐와 보안 절차 통과까지, 사실상 플라스틱 카드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몸에 이러한 바이오 침을 심는다는 것에는 아직 거부감이 있지만, 이러한 칩 이식이 세계적으로 퍼지면 칩 이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금 무서운 느낌이었다. **강**: 생명공학** 필자는 소속이 바이오메디컬 학과로, 생명공학과 연관이 되어있다. 따라서 배경지식을 보유한 상태로 책을 읽었다. 생명공학은 분야 자체가 다른 분야들과 다르게 특수한 점이 있다. 첫째,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명공학은 디지털 기술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 셋째, 생명공학의 발전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고, 실용화되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생명공학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단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생명공학은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답이 없을 것이다. 대학원 석박사의 현저히 낮은 연봉이나 불확실하고 어려운 기술(유전자 가위) 등에서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생명공학의 전망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 **나**:**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가장 유의 깊게 본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은 바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라고 불리는 클라우딩 기술이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왜 흔하고 현재 많은 사람이 사용 및 활용하고 있는 기술을 왜 유의 깊게 보는 것인지?, 또 감명 깊은 것이라면 완전 새로운 기술을 적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클라우딩 기술을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대중화 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게 보통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신기술이 없어도 큰 불편함 혹은 미충족 욕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고 이 신기술이 보다 편리하고, 나의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그냥 누구나 쓰는 기술이 된다. 이 책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기술들이 나왔다. 커넥티드 홈, 자율주행 자동차, 불록체인기술과 같은 우리 일상속에서 이미 가까워진 기술들도 있었고 이름조차 어려운 정말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기술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신기술들이 지금은 괴상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기술처럼 점점 그 벽이 사라지고 대중화 되어 사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무섭기도 한 것 같다. 기대되는 점은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 더 편리함이 늘어나게 된다는 기대, 또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설렘 정도가 있었고, 무서웠던 점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또 다른 말인 초연결 시대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최근 일어났던 KT오류사태를 비롯한 개인정보, 국가 시스템, 사이버 전쟁 등의 많은 문제들의 발생 등이 무섭게 느꼈던 점이었다. 클라우드 기

	술도 처음 나왔을 때는 기존의 USB보다 보안이나 안정성의 측면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다른 신기술들도 앞으로 위와 같은 비슷한 양상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 책에서는 스마트 도시의 기능보다는 효과 위주로 나와 정확히 스마트 도시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찾아본 바로는, 스마트 도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4차산업을 접목시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나와있었다. 실제로 스페인 북부의 산탄데르시에서는 스마트 도시가 일상화되어있다. 이 책이 쓰인 시점이 2016년 즈음인데 이때 사람들은 2025년에는 스마트도시의 발생 가능성을 63%로 예측했다. 2021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살아가면서 그다지 스마트한 기능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에는 조성계획안이 무성한 걸 보아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가깝게 느껴졌다. 최근에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를 봤다. 사람의 크기가 작아져 그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살아가는 내용이 주인데 다소 IT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스마트 도시에서 꼽는 장점들이 영화 속의 도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의 도시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현실이 된다면 또 어떤 다른 발전을 꿈꾸고 있을지 내심 기대감이 들었다.

2021년 11월 10일

참가자대표 : 나**

{ 4주차 『선량한 차별주의자』 }

<table>
<tr><td>북클럽 팀명</td><td colspan="8">장학생들판(場學生들판)</td></tr>
<tr><td>운영일시 / 장소</td><td colspan="8">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요일) / 장 소 : 카페(이디야 / 대면)</td></tr>
<tr><td rowspan="4">참석자 명단</td><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8</td><td>이름</td><td>나**</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7</td><td>이름</td><td>정**</td><td colspan="4"></td></tr>
<tr><td>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td><td colspan="8">

{감상평}

강: 말 그대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어떤 것인지를 콕 짚어주는 그런 책이었다. 나 또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의 이면들을 다시금 마주할 수 있게 했다. 평소에 내가 가진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 자신을 차별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권'을 다루는 부분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었는데, 학교에서는 '감사하기'라는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가졌었다. 말 그대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 3가지를 적는 시간이었는데, 당시에는 그저 귀찮기만 했던 활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 큰 의미가 있던 활동이었음을 깨달았다. 책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버스를 타는 것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자유롭게 버스에 타는 것'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너무 당연한 사실임에도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였다. 과연 나는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특권들이 무엇이 있을까. 책에서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반성을 하게 된 것 같다. 사실 난민 수용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뿐더러 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 들었지 그 이유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고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난민들이 남성이어서, 그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입국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리고 반성했다. 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등등에 무관심하고 사실을 약간의 차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 이 책은 꽤 민감한 주제에 다룬다. 필자는 책을 읽으면서 동의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는 사람들이 개그 소재를 보고 웃는 이유에 있다. 먼저 두 개의 이론을 설명하겠다.
*우월성 이론-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져 웃음이 나온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 대상보다 자신이 우월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td></tr>
</table>

	*편견 규범 이론– 누군가 비하성 유머를 던질 때 차별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 결과 규범이 느슨해지고,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편견을 쉽게 드러내면서 차별을 용인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책에서는 위의 이론이 나오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흑인 분장을 한 개그맨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웃는 현상을 우월성 이론에 비유했다. 사람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다. 남을 비하했을 때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나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이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게 재밌다면 그것은 사이코패스나 다름이 없다. 또한 편견 규범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평소 규범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던 차별 표현들을 분위기가 풀리면 본능적으로 사용한다고 나타낸다. 그러나 필자는 원래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 원했던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동의하는 부분은 능력주의의 역설이다. 능력주의는 “누구나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다. 누구든지 노력과 능력으로써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책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개인에게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직장, 노숙자, 실직자 등은 게을러 아니꼽게 생각한다. 이 책은 이러한 능력주의의 사회를 오히려 꼬집어 비판했다. 예를 들자면, ‘해외 로스쿨 시험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1.5배 더 주거나,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리스닝 점수 기준을 낮추는 등’을 능력주의 입장에서는 차별이지만 이것은 그들 만의 편견이라는 것이다. 정말 공정한 것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필자는 또한 다음을 추가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낮거나 곤란한 환경에 빠진 사람들도 분명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도 그들 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노력의 여부를 따지는 건 능력주의의 역설이라고 생각한다. 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내가 흥미롭게 봤던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 중 하나이다. 사실 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대사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말이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자원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써 일을 하고 싶고 결국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한다. 물론 이 책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한번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보는 좋은 환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관련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직업이나 행동에 따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들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무심코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차별이 사람마다 차별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않기도 해서 이 차별이라는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

	대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어느 시대에서는 차별이 될 수 있고 또 어느시대에서는 같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아닐 수 있어서 이러한 점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책이었고 또 좋은 기회였다. **정**:** 처음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났던 것은 선량한데 차별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이었다. 선량한 사람은 차별과는 거리가 다소 멀어 보인다. 책을 읽다 보다 보면 이 모순적인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심각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들은 늘 존재해왔다. 아무리 내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행동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선량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나도 누군가를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남모를 차별을 해오진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부끄럽게도 이내 몇몇 일들이 떠올랐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식을 못 했을 뿐이지 차별한다는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보다 '너 인종차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은 당황하며 조롱을 멈췄다. 상대방은 그냥 재미삼아 놀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놀림을 받는 사람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차별이다. 솔직히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차별인지 아닌지 따지고 살기에는 피곤할 수도 있다. 차별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식을 개선하는데 있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 관짝소년단이 인종차별으로 볼 수 있을까? } *관짝소년단: 밈으로 유행했던 아프리카 가나 장례식 모습을 담은 사진을 따라 의정부고 학생들이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 '관짝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블랙페이스 분장을 함. 당시에 방송인 샘 오취리가 SNS에 비난의 글을 올림. **강**:** 당시에 그 사건을 본 입장으로서,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나도 인종차별을 당연히 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저 흑인을 개그 소재로 사용했다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흑인 분장을 한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밈을 따라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 밈 자체가 개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만약 그 관짝 밈이 백인들이나 한국인들이 한 것이라고 해도 유명했다면 그 고등학생들은 흑인 분장을 하지 않고 관짝밈을 따라 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흑인 비하라는 말 자체가 자격지심의 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키운 흑인 연예인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를 생각한다. **강**:** 필자는 흑인을 싫어한다. 정확히는 흑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싫어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피부 색깔(검정색)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민감하다. 인종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을 생각해보자. 전자보다 예민하지 않다. 더구나 서부 사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폭행이 자주 일어난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대한 혐오성이 커지면서, 중

	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해 혐오성이 생기는 것이다. 심지어 며칠 전 뉴스를 봤을 때, 흑인 여성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소재가 다루어졌다. 만약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으면,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다. 관짝밈 사건의 주인공인 샘 오취리는 방송과 인스타에서 오히려 인종차별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들을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건 당연시 여기면서 고작 의정부 고등학생들이 흑인 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모자이크도 안 한 채 그대로 인스타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치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인스타에 올려진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모든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샘 오취리가 SNS을 이용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이 들뿐이다. 나**: 피부 색깔, 인종 간의 갈등과 차별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다인종, 다민족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다. 이러면에서 볼 때는 관짝밈, 블랙페이스 소재와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는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정말로 그 의도가 불순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데 단순한 사건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였는데 SNS에 여성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과연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다. 정**: 상황만을 보았을 때는 옳은 목소리를 냈다고 본다. 행위를 했던 사람이 비하할 의도나 남을 웃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별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블랙페이스 사진만을 보고 차별이라고 느꼈다면 그 사람한테는 차별인 것이다. 차별에 변명은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시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차별으로 봤던 연예인의 발언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여성에 대한 옳지 못했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 인종차별에는 왜 심각하게 반응하는지 의문이었다. 또한, SNS에 공개 저격했던 사건은 공인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 { 차별했거나 차별받아왔던 행동 } 강**: 우선 차별한 행동을 이야기해보자면, 초등학교 때를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 10년가량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장애인과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때이다. 당시 수업 진행이 매일매일 어려울 정도로 수업 방해를 받았고, 그 친구에게 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차별이라면 차별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학교를 흑인과 백인으로 구별했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차별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입해보면 장애인학교와 비장애인 학교가 나눠진 것이 이와 같은 사례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장애인학교와 비장애

	인 학교를 나누는 것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일까?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은 학교를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적 장애인과 학교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이미 차별적인 시선이 박혀버린 것일까? 누군가가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차별이라고 한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강**: 필자는 작년 2020에 입학할 때쯤 2월에 춘천에서 자취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지 못했고, 수업조차 진행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정신적으로 고립이 되자 사람들에게 불신이 생긴 것 같다. 사실 자취를 할 때 이전 세대가 남긴 흔적을 집주인이 청소하는 대가로 2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일명 청소비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 청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빠와 내가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치우고 있을 때, 집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면서 “집 좋지? 청소 잘 되어있지? 얼마나 깨끗해^^” 라며 웃는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또한 친구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춘천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로 느껴졌고, 시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시골이니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예의와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항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춘천에서의 자취를 서울에서의 자취로 변경했고, 결국 그것은 내 편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올해부터 춘천에서의 자취를 시작했는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도 열심히 하면서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요즘은 춘천과 사람들이 너무 좋다. 앞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동안 춘천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서 차별을 했던 것 같다. 나**: 사실 내가 차별한 행동은 찾기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책의 느낀 점에서도 말했듯이 차별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구나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도덕적 관념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단, 무심코 내 뱉는 말이나 행동에 나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건낸 말이나 행동에 상대방은 그것을 차별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내가 차별받았던 것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클럽 모임에서 수연님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서 교육하는 부분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이 책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 즉 인종에 따라 학교를 분리하여 교육하였는데 이것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차별이다라고 판단되어 모두 통합교육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수연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분리 교육도 차별일 수 있다고 꼬집어 주셨다. 나는 이 부분에서 학창 시절 성적분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영어나 수학 같은 대학입시에 중요한 과목들은 성적에 따라 상, 중, 하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당연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고 또 북클럽 팀원들의 의견들을 경청해보니 위와 같은 행위들이 똑같은 원리로 차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나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정** : 개인적으로 난민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아프간 난민 문제도 안타까웠지만 내심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난민수용을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의 안보 문제가 가장 컸다. 추가적인 문제로는 난민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주해온 난민을 위한 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에 있어 우열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야말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 반대로 내가 차별받았던 기억은 먼 친척들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입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친척들의 행동이 기억에 남는다. 그 때 나에게는 명백한 차별이었고 아직까지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정당하게 입학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때는 학교생활을 잘했던 동기들과 달리 나는 늘 고등학교 때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의문을 품고 학교에 다녔다. 지금은 많이 극복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내가 참 안타깝다.

2021년 11월 17일

참가자대표 : 나**

{ 5주차 『미움받을 용기』 }

<table>
<tr><td>북클럽 팀명</td><td colspan="8">장학생들판(場學生들판)</td></tr>
<tr><td>운영일시 / 장소</td><td colspan="8">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요일) / 장 소 : 카페(이디야 / 대면)</td></tr>
<tr><td rowspan="4">참석자 명단</td><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8</td><td>이름</td><td>나**</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7</td><td>이름</td><td>정**</td><td colspan="4"></td></tr>
<tr><td>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td><td colspan="8">

{감상평}

강:** 이번에 선정한 도서 '미움받을 용기'는 너무 유명한 책이라 항상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읽은 느낌이다. 다시 한번 북클럽의 순기능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책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이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았다. 첫 부분부터 생각의 전환을 하게 했는데, 원인론이 아닌 목적론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과거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나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과연 나는 과거를 이유 삼아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목적을 위한 것을 과거를 원인으로 핑계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생각해 보니 내가 화내는 이유도 사실은 상대에게 화를 내고 싶어서 그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나 자체도 나를 속이고 있는 기분.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생활양식의 선택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나 자체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변하기 않는 이유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즉 사람들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기 때문에 변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나의 불만을 그저 불만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다. 불만은 있으되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바꾸기엔 나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새삼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음을 생각했다. 불만이 아닌 불안을 선택할 용기, 나는 그게 부족했다.

강:** α.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과제

처음부터 나 자신과 맞지 않거나, 내가 저지른 실수에 의해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만약 저지른 실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싶다면 사과하는 게 맞을 수 있다. 이것이 곧 나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책은 설명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과제만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과제는 사과에서 이미

</td></tr>
</table>

끝났다. 또한 나 자신을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들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것은 타인의 과제일 뿐이다.

b. 남의 인정

상대방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마라. – 필자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 책에서는 이 주장의 예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한 학생이 있다. 그는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청소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학생의 노력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학생은 칭찬을 듣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학생은 청소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이 주장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인정을 필요로 한다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다. 남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동을 한다면 결국 삶은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c. 사람은 그 모두가 가치가 있다.

가령 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야만 하는 말기 암 환자가 있다 하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봉사만 받아야 할 뿐이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설령 가족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병원 봉사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이 된다. 즉,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행복하게 잘 살자.

나**: 이번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다.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고, 나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내용도 존재했다. 먼저 이 책은 서두에 원인론과 목적론에 대해 설명했다. 간단하게 요약하며 설명하면 내가 불안감을 느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원인론에 해당, 반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깐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적론이다. 이 책에서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이 목적론의 생각을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이 목적론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가다 보니 위에서 말했듯이 내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공감하는 내용과 나의 가치관과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먼저 공감을 했던 내용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난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평소에 어떠한 경험을 하고 또 배웠을 때 항상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이러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피해야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안당할지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책에서 말하는 목적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책에서는 어머니의 담임 선생님의 통화와 나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예시로 들며 분노는 마음대로 꺼냈다가 감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

	한 주장에 공감할 수 없었다. 사람의 감정은 솔직해야 하며 그 감정을 드러내야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분노와 화를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해서는 안 되며 그 분노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 책에서처럼 분노를 마음대로 감추고 꺼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조금만 더 서술해 보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인군자들의 이야기들처럼 느껴졌다. 아무래도 내가 배우는 분야가 경영, 재무, 회계와 같은 분야이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나와의 가치관과도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내 가치관은 현실주의자에 가깝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은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너무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도 문제가 되지만 이 책의 내용과 같은 너무 유한 태도를 가져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책의 내용을 적절하게 섞는다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 미움받을 용기는 국내 최장기 베스트셀러 책이라고 한다. 다들 같은 마음으로 책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본다. 나 또한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기에 이 책을 사서 읽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읽게 될 줄은 몰랐다. 책은 정신의학자인 아들러의 심리학에 맞추어 쓰였는데 주로 인간관계나 트라우마를 언급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문제들을 심리학과 철학에 접목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과제 나누기를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과제 나누기란 내 생각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나만의 과제로, 타인의 생각은 내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타인의 과제로 나누는 것이다. 남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내 생각을 설득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게 타인의 생각이다. 즉, 타인의 과제는 내가 침범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나누어야 할 과제들이 생각났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책의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떠한 결과를 원해서 트라우마나 나의 단점들을 생각해낸다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A는 안면홍조 때문에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책에는 단지 A가 고백하면 차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면홍조를 만들어내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인과관계만 우선시하는 주장이라 동의하기 어려웠다. 안면홍조는 유전자나 호르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배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조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때문에 시험공부를 할 수 없어 F 학점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F 학점을 받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저자는 내 말을 들으면 반박하겠지만, 그에 따른 논리적 해설이 없어 아쉬웠다. ## {자신의 경험을 책 내용에 적용} **강**:** 나의 경험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조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책에서는 트라우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조원들이랑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트라우마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저 심리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꽤 안

	일한 생각이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같은 조원의 트라우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트라우마가 생기는지 이해가 갔다. 항상 멀리서만 바라봤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으니 생각이 달라졌다. 과거의 사건 하나로 현재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그저 엄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다시금 배운 것은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지양할 것. 편협한 생각을 가지기 충분한 상태의 나는 바뀔 필요가 있다. **강**:**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 구절은 현대인들에게 꽤나 영향이 큰 문장들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행동(두려움, 트라우마)를 정당화한다.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했기 없다"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를 완전히 부인한다.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들에 대한 나의 시각, 심리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의해 주눅들 필요도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 자신을 만든다. 필자는 이 구절이 되게 맘에 들었다. 또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 이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 지금의 생활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눈앞에 닥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험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고 또 더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양식대로 산다. 이러한 방법이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선택해놓고 정작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적은 이유는 지금 내 진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공기업과 사기업,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편하지만 지루한 일과 재미있지만 힘든 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막상 민낯을 보면 위와 같은 장점 때문에 도전적인 방향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진로를 본격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로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 아들러의 용기의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트라우마 얘기를 하고 싶다. 트라우마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많이 바뀌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렸을 땐 이것을 단지 엄청 무서웠던 것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종종 내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들을 듣거나 보기만 해도 과거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되풀이를 해오고는 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내린 나의 결론은 과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은 과거에 두고 현재 많이 생각해왔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려고 하는 편이다. 아예 트라우마를 떨쳐버린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들을 꺼내오는 것부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 {팀원들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강**:** 제목처럼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1년 전까지만 해도 본

	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사람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살폈다. 현재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조금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사람 한정으로... 한 명이나 두 명이 본인을 싫어한다면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만한 수준까지는 온 듯하다. 그래도 왜 나를 싫어하는지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싫어할 만한 요소가 나에게 있다면 그건 고쳐야 하는 것이니까. 물론 고쳐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나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거라면, 오히려 내 쪽에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지 않을까도 생각한다. 방금은 소수에게 미움받는 경우를 생각했다면, 다수에게 미움받는 상황은 어떨까 생각해 봤다. 소수는 버틸 수 있는데, 다수는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미움받을 용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다수가 나를 싫어하는 상황이 온다면 거의 확실하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는 보겠지만 그 문제를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 알아채기는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선 그런 상황이 안 오게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고, 그 이후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나는 미움받을 용기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강**: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는 다수에게 미움 받을 용기는 없지만, 소수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미움받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다수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없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물론 능력이 좋으면 커버를 낼 수 있지만, 혼자보다 여러 사람과 협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특히 대학에선 선후배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족보나 술자리,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인간은 사회에서 곁에 아무도 없으면 죽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소수는 어떨까? 소수에게 미움받는 것은 경우에 따라 잘못이 다르게 분배된다. 필자는 이런 경우에 만약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잘하면 되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당당히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람들은 남의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나**: 먼저 소수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가치관과 관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눈치를 보며 항상 타인에게 맞춰줄 것이 아니라면 소수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누구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다수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반반인 것 같다. 누가 봐도 부당한 상황, 이를테면 성추행을 당하는 상황이나 아무 이유 없는 일방적인 따돌림, 비리(부정부패) 등을 관행이라며 행하는 상태에서는 다수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지적하고 나서는 행동을 할 것 같다. 내가 영웅이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나서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이 더 큰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지금의 기준이고 만약 내가 가정이 생겨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 자신만 신경 써도 되는 상황이라면 난

	다수에게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 하지만 다수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이나 잘못된 관행이 아닌 이상 내가 이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수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내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머리로는 엄청난 과제를 나누고 있겠지만 실은 외유내약이라 용기가 많이 부족하다. 소수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기보다는 미워하기 위해 이유를 찾아내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왕따·집단 괴롭힘 문제들을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살다 보면 용기 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용기까지 필요해? 라고 위로해 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책이 이 용기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 내 감정을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면의 강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4일

참가자대표 : 나**

{ 6주차 『단편영화 CURVE(커브)』 }

<table>
<tr><td>북클럽 팀명</td><td colspan="8">장학생들판(場學生들판)</td></tr>
<tr><td>운영일시 / 장소</td><td colspan="8">일 시 : 2021년 11월 28일(일요일) / 장 소 : CLC(1층 라운지 / 대면)</td></tr>
<tr><td rowspan="4">참석자 명단</td><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20</td><td>이름</td><td>강**</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8</td><td>이름</td><td>나**</td><td>학번</td><td></td><td>이름</td><td></td></tr>
<tr><td>학번</td><td>2017</td><td>이름</td><td>정**</td><td colspan="4"></td></tr>
<tr><td>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td><td colspan="8">{감상평}
강**: 단편영화 CURVE는 2016년에 만든 공포 장르의 영화라고 한다. 약 10분의 짧은 영화인데,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봤었던 기억이 있다. 영화는 한 여자가 커브 모양의 절벽에 누워있는걸로 시작하는데, 그 밑은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여자는 안간힘을 쓰며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손에 피가 나고, 설상가상으로 비가 오는 바람에 여자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걸이를 손바닥에 감아 절벽을 올라가려고 애쓴다. 이 부분은 영화에 대해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알아보니 이 장면이 감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면이라고 한다. 감독이 교통사고를 당해 구 손바닥으로 고통스럽게 기어 나왔던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장면임을 알고 나니 그 고통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았다. 영화를 보다 보면 여자의 공포와 좌절, 두려움이 뒤엉킨 감정이 점점 더 잘 느껴지게 된다. 실제로 감독은 자신의 자전적 경험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친구의 이야기가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봤다. “하루 중 가장 기분이 나은 때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난 짧은 몇 초뿐이었어. 그다음엔 슬픔이 몰려왔지. 현기증하곤 다른 기분이야. 내 발밑엔 지구가 입을 벌리고 날 기다리는 것 같았어. 하루 종일 추락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확실히 느낀 것은 영화의 제작 의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확연한 차이를 느꼈다는 것이다. 우울증을 표현하기 위한 제작 의도를 알기 전에는 그냥 공포영화구나 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도를 알고 나니 영화에 더 잘 몰입할 수 있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 영화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던, 아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말 못 할 고민이나 슬픔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영화는 그럴 때의 기분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 영화가 와닿았다. 누군가 이 영화에 관해 묻는다면 거리낌 없이 추천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그 제작 배경까지 이야기해주는 것을 필수로.

강**: 우울증에 걸린 환자의 심적 상태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울증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커브의 주인공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손에 피가 나도록 버텼고, 그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얼마나 공포에</td></tr>
</table>

	떨고 있는지였다. 필자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내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비록 단편영화지만, 충분히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알 수 있었다. 나**: 나는 사실 지금까지 단편영화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흥미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6주차에 팀원들의 의견이 단편영화 커브를 한번 다루어보자 라고 모아져서 단편영화 커브를 보게 되었다. 나는 커브가 단편영화라서 최소 30분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10분도 채 안 되는 영화였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약간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될 경우에 3회독 정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영화는 3번을 반복해서 봐도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의 탄생배경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봤다. 검색해보니 이제야 이 영화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 단편영화 커브는 감독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친구를 보고 만든 영화라고 한다. 그 구덩이가 쉽게 말해 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화 속 주인공은 그 구덩이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또래상담 활동을 한 적이 있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주변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자신의 자살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바람에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배웠다.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인 여자가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손톱이 빠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목걸이를 풀어 자신의 손에 감고 마찰력을 높여 탈출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배운 내용인 신호를 보낸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도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며 주변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위와 같은 신호를 보낼 때 잘 캐치하여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 커브는 감독이 친구의 우울증을 모티프로 만든 영화이다. 그래서 나는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구멍을 우울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낭떠러지 같은 벽에 겨우 지지해, 내가 왜 우울한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언제 아래로 추락할지 모르는 심정은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절벽에 있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응할 테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최대한 살려고 몸부림친다. 결국 아래로 추락해버리지만 이와 같이 우울증 환자들도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영화를 보고 바로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 사촌 동생이 한 명 있다. 그 친구는 재능도 많고 활발한 친구였지만 점점 커가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에 예의 없게 구는 행동이며 무슨 말을 붙여봐도 항상 비관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듣기 거북했다.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까지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당시에는 수험생이라면 의례적으로 거쳐 가는 감정의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 친구가 우울증이었다는 것은 한참 뒤에 들었다. 그냥 걔의 성격일 뿐이라고 짐작했던 것이 병이었다고 하니까 걔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갔다. 그 친구는 분명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증을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절벽에 있는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

간 동안 구멍에 있었을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자신이 우울감을 느낄 때의 극복법}

강: 최근에도 우울하다고 느낀 적이 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극복법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우울한 상황을 생각하고, 이런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극복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에게 제일 맞는 방법은 첫째로 자는 것이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울한 상황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방법은 우울한 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나의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다. 내 생활을 바쁘게 할수록 과거의 우울했던 기억은 잊어먹기 마련이다. 하지만 생각이란 게 마음대로 그렇게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고 난 뒤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 우울감을 느낄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우울감 즉 우울증이 도래하면 이를 날씨로 여긴다는 것이다. 가령 어느 날은 날씨가 좋고, 어느 날은 날씨가 흐리고, 어느 날은 비가 오기 마련이다. 나의 감정도 똑같다. 만약 기분이 우울하면 “아 지금 내 기분이 우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잠시 하던 것을 멈춰 놓고 한숨을 돌리자. 또한, 우울감을 절대로 나쁘게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억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나: 내가 우울감을 느낄 때의 극복 방법은 조금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정말 심한 우울감을 느끼고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상황이라면 의사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시한 방법은 보통의 경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을 해결할 때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 방법에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그 감정이 속에 쌓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그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동반되어야 내가 제시한 방법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정리하면 우선 우울감을 느낄 때에는 먼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고 그 쌓인 감정을 그날이나 여의치 않으면 주말, 여가시간 등을 이용하여 그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우울감을 느낄 때의 극복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풀어줄 때의 방법을 설명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적인 것들을 활용하여 풀어주는 편이다.

정: 우울함을 유발하는 문제의 원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다. 내 우울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

	면 된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은 ISS에서 송출하는 영상을 본다. 평상시에 보면 하품만 나오는데 우울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나도 의문이다. 그 지구를 보고 있으면 구름마저 작은 점으로 나오는데 그 구름 아래 있는 대륙에서 살아가는 나는 실은 정말 작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진다.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나는 그 크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우울함의 크기도 같이 작아 보인다. 어쩌면 정신승리일지도 모르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우울함이 사라진다. 또 그 넓은 세상에서 어디선가 아등바등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다시 우울에서 빠져나와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 {한 한기 동안 북클럽 시간을 가지며 느낀 점} 강**: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이었다. 처음 북클럽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좋은 사람들과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더더욱 애정이 생겼다. 사실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를 느꼈다. 누군가 북클럽을 다시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무조건 다시 하겠다고 답할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북클럽에서 얻은 것을 나열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좋은 사람들, 북클럽 사람들과는 북클럽이 끝나고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다. 두 번째는 많고 다양한 책을 읽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사실 이 북클럽이 아니었으면 한두 달에 한 권씩 읽을까 말까 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북클럽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다는 것에 새삼 놀랍기도 하다. 이 점이 북클럽의 제대로 된 순기능이 아닐까 싶다. 어찌 되었든, 사람과 책 두 가지 모두를 얻었으니 나는 매우 매우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은 아쉬울 정도로. 강**: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북클럽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과의 교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책의 내용이 좋더라도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나랑 잘 맞지 않는다면 전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북 클럽 첫 모임 때 부원들의 첫 이미지는 다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였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하든 부원들이 좋게 봐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북클럽이 최고인 것 같다. 매주 어느 누구도 불참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으며, 진정 독서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들 로만 팀이 이루어졌다. 회식도 한 번 있었는데,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회식을 가지고 싶다. 두 번째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과 시야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았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명이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책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어서 재밌었다. 처음에 책을 선정할 때 각자 원하는 책을 선정해 여러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분야가 서로 다 달라서 북클럽이 아니었으면 절대 읽지 못할 책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았다. 나**: 한 한기동안 북클럽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는 것이다. 처음 우리가 이 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똑같은 책, 주제로도 각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한층 더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북클럽이 거의 끝날 시기에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한다는 점과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많이 읽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책을 꽤 많이 읽은 내 자신이 뿌듯했다. 여기까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이고 사실 더 많이 느꼈고 좋았던 점은 우리 팀 이였다. 내가 참가자 대표를 맡게 되면서 나름 책임감을 느끼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리더십도 발전한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장학생들판'의 팀원 모두가 좋은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주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졌던 것 같다. 비록 공식적인 만남은 여기서 끝났지만 앞으로도 팀원들과 자주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북클럽 활동을 하며 각자 얻거나 깨달은 점이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얻은 것은 바로 우리! 강**, 강**, 나**, 정** 이렇게 네 사람이다. 부디 앞으로도 네 사람 모두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 얻은 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과 목표를 이루기를 바란다. 정**: '장학생들판'의 운영 목적은 다양한 관점 찾기와 독서의 본질을 실천 두 가지다. 모두 성취해 결실을 이뤄 뿌듯하다. 재학 중 처음으로 참여해보는 심비우스 북클럽이었는데 명성이 자자했던 만큼 기대 이상이었다. 내가 이렇게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끈기가 있었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다. 특히 3주 차 독서였던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은 개인적으로 관심 분야도 아니었고 생소한 책이었다. 북클럽이 아니었으면 사실 평생 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책이었는데 완독을 하고 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한 번의 결석 없이 끝까지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준 장학생들판 멤버들도 북클럽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쯤 되면 다 같이 두꺼운 전공 책을 읽어도 재밌게 읽고 토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학번에 편견 없이 친구처럼 대해준 장학생들판 멤버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2021년 11월 28일

참가자대표 : 나**